

불국사 사리탑의 流轉과 식민주의

신은영*

- I. 머리말
- II. 일제시기 불국사 사리탑의 반출과 반환
- III. '신라'에서 '고려'로 - 사리탑 시기 비정의 변화
- IV. 1960~70년대 불국사 복원과 사리탑의 재이전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불국사 사리탑이 처음 학계에 보고된 1904년부터 해방 이후 현재의 위치에 봉안되기까지의 流轉¹ 과정을 '식민주의'라는 문제를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경주 불국사 비로전 옆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리탑이² 있다. 이 사리탑은 韓末 일본으로 반출되어 행방불명되었다가 도쿄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1933년 제자리로 돌

* 인천시립송암미술관 학예연구사

¹ 일제시기 고유섭은 불국사 사리탑의 국외 반출, 일본에서의 전진, 조선으로의 귀환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기이한 流轉”이라 표현하였다. 고유섭, 『佛國寺의舍利塔』, 『清閑』15(清閑社, 1943.3) (『朝鮮美術史』下(열화당, 2007), pp. 115-136에 재수록).

² 불국사 사리탑의 명칭 문제와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허형욱, 『佛國寺 石造 舍利塔의 造成時期와 性格 考察』, 『동원학술논문집』13(2012), pp.54-80.



도 1 불국사 사리탑, 1933(추정)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건판022103).

아왔다(도 1). 최근 공개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關野貞日記』에는 불국사 사리탑의 발견, 반출, 반환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잘 남아있다. 이 글의 Ⅱ장에서는 이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사리탑이 일본으로 반출되고 조선으로 반환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1933년 일제의 반환 명분이었던 문화재 現地主義가 植民主義와 어떻게 결합하여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韓末 “신라시대의 우수한 작품”이라는 세키노 다다시의 평가는 사리탑 반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불국사 사리탑을 유서 있는 조선으로 반환하자는 주장의 근거 역시 “신라 문화의 정수”라는 세키노의 평가였다. 반출의 원인과 반환의 근거가 모두 세키노 다다시의 ‘新羅

文化의 精髓’라는 가치 부여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3년 고유섭은, 불국사 사리탑의 양식 분석을 통해 이것이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사리탑임을 주장하며 세키노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³ 세키노 다다시 死後 불국사 사리탑은 고유섭의 “고려시대 것”이라는 견해가 정설로 굳어져 간다. Ⅲ장에서는 일제시기 사리탑 장소 流轉의 근거였던 시기 비정, 즉 신라문화의 정수라는 평가가 해방 이후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작품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불국사 복원 과정에서 어떻게 사리탑 재이전의 근거가 되는지의 단서를 만들고자 한다.

1960~70년대 불국사는 대대적인 복원 공사에 들어간다. 당시 불국사 복원의 목표는 찬란한 신라시대 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불국사 복원을 통해 “신라문화의 精華를 재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기에는 난관이 많았다. 특히 불국사 내 신라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의 처리 여부가 문제였는데, 고려시대 사리탑이 대표적이었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이른바 “신라화”를 목표로 한 불국사 복원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대 작품’이라는 규정이 사리탑의 장소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저변의 역사상과 연관지어 논의하겠다.

³ 고유섭, 앞의 논문, 1943(앞의 책, 2007, pp.115-136에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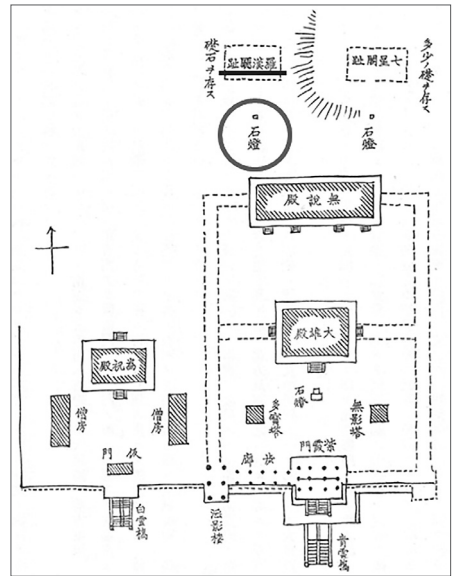
II. 일제시기 불국사 사리탑의 반출과 반환

1. 불국사 사리탑의 流轉

불국사 사리탑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04년의 일이다. 1902년 8월에 이어 1904년 두 번째 경주를 방문한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1867~1935)가 『韓國建築調査報告』에서 사리탑을 비롯한 불국사 유물을 소개하였던 것이다. 당시 작성한 불국사 평면도를 보면 羅漢廳趾(현재의 毘盧殿) 앞에 石燈, 즉 사리탑이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 2).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리탑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현재 오사카(大阪)에 있고, 곧 도쿄(東京)로 올 것이다”⁵ 라는 『國華』속 세키노 다다시의 언급을 통해 적어도 1906년 5월 이전에 사리탑이 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는 사리탑의 소장자로 오사다 신조(長田信藏)를 명기하였는데, 후일 세키노가 “(불국사) 寺僧으로부터 사리탑을 구입한 개성의 모씨”로 언급한 인물이다.⁶

일본으로 간 불국사 사리탑은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 내 세이요겐(精養軒)이라는 요릿집으로 팔려 갔다. 1906년 5월에 발행된 『國華』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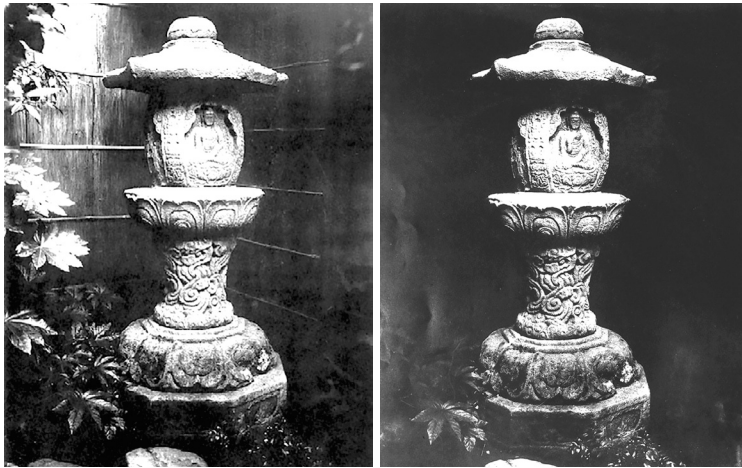


도 2 불국사 평면도(『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学, 1904), p. 35).

4 関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学, 1904), p. 35. 당시 세키노 다다시는 이 사리탑을 石燈으로 오인하였다.

5 関野貞, 『韓國新羅時代ノ石燈』, 『國華』 192 (國華社, 1906.5), p. 295.

6 関野貞, 『佛國寺舍利石塔』, 『美術研究』 19 (1933.7), p. 19; 関野貞, 『佛國寺舍利石塔』,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 p. 697. 大阪渡韓獎勵事務所를 운영했던 오사다 신조는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이민 사업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골동 사업에도 손을 댔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국사 사리탑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소유자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関野貞日記』에는 1902년 여름, 세키노가 오사다와 함께 선죽교, 성근관, 고려궁지 등 개성 이곳저곳을 답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도 조선 사정에 밝았던 오사다가 세키노의 현지 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1904년 발행된 『韓國建築調査報告』 서문에서 세키노 다다시가 주한공사서기관, 통역관, 외교관과 함께 오사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도 3 左 도쿄 세이요겐에 안치되어 있는 불국사 사리탑(『國華』192(國華社, 1906, 5), p.293).
右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불국사 사리탑(『朝鮮古蹟圖譜』4(朝鮮總督府, 1916), p.462).

에는 세이요겐에 안치된 불국사 사리탑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⁷ 흥미로운 점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16년, 『朝鮮古蹟圖譜』에 같은 사진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도 3).⁸ 두 사진은 동일한 구도와 앵글에서 촬영된 같은 사진이지만 『조선고적도보』에서는 사리탑의 뒷배경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사진 좌측 상단에 ‘佛國寺浮圖’라는 캡션과 함께 ‘慶北, 慶州郡 吐含山’이라고 출처를 명기하면서도, 『해설편』에서는 “근년에 內地[일본]로 가져갔다”고 이중적으로 서술하였다.⁹

1906년 세이요겐에 있었던 불국사 사리탑은 1909년을 전후하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1910년경 조선총독부에서는 사리탑을 불국사로 되돌려놓기 위해 세키노 다다시에게 조사를 위탁하였다.¹⁰ 세키노는 먼저 세이요겐에 그 소재를 물었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그 후 약 20년간 사리탑은 종적을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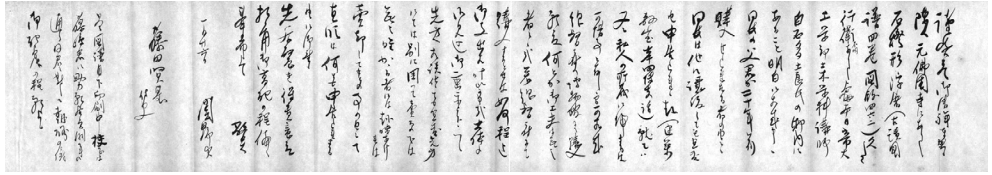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33년 1월, 동경제대 토목학과 강사 시라이시 타시로(白石多士良)가 세키노를 찾아왔다. 시라이시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20년 전 梅花園에서 구입했다는 조선 전래의 석탑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데, 일찍이 세키노가 『國華』에 소개했던 그 사리탑으로 보인

⁷ 関野貞, 앞의 논문, 1906, p.293.

⁸ 『朝鮮古蹟圖譜』4 (朝鮮總督府, 1916), p.462.

⁹ 『朝鮮古蹟圖譜解説』4 (朝鮮總督府, 1916), p.45.

¹⁰ 関野貞, 앞의 논문, 1933. 7, p.19.



도 4 세키노 다다시가 후지타 료사쿠(조선총독부 박물관장)에게 보낸 편지, 1933. 1. 26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03-001).

다는 것이었다. 시라이시는 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며 “總督府博物館에서 購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 總督府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1월 26일, 세키노 다다시는 급거 조선총독부박물관장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하였다(도 4).

원래 불국사에 있던 石燈形浮屠(古蹟圖譜 4卷 圖繪462)가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는데, 오늘 帝大工學部 土木學科 講師 白石多士良氏의 저택 내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同氏의 부친이 20년 전 구입한 것으로, 同氏는 다른 곳에 讓渡해도 좋다고 하고[建築部室 岸田博夫 話], 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總督府博物館에서 購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總督府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말해주면 상대측과 상의하겠습니다. 상대는 특별히 곤란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것에는 취미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이며,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빨리 의견을 구해 高配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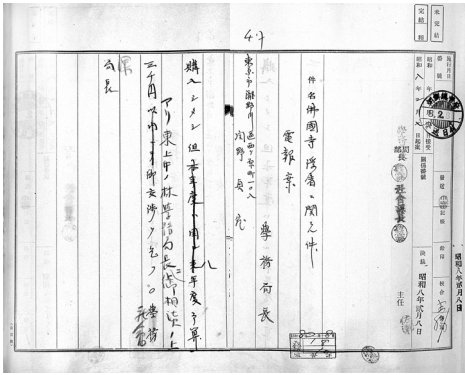
1월 26일, 關野貞
藤田賢臺¹¹

2월 7일, 세키노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하야시 시게키(林茂樹)로부터 매입가 3千円 내에서 협상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도 5).¹² 그러나 총독부와 매도자 간 가격차로 인해 사리탑 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¹³ 매입 교섭 실패 후 며칠 뒤인 2월 21일, 세키노는 藤嶋, 木村, 靑山 등과

¹¹ 關野貞가 藤田亮策에게 보낸 편지 (1933.1.26),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03-001.

¹² 林茂樹가 關野貞에게 보낸 전보 (1933.2.7),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01-001-4.

¹³ 關野貞日記(1933.2.10), 關野貞, 『關野貞日記』(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p.671.



도 5 하야시 시게키(조선총독부 학부국장)가 세키노 다다시에게 보낸 전보, 1933.2.7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01-001-4).



도 6 시라이시 타시로의 저택 정원에 있는 불국사 사리탑 앞에서, 1933.2.21 (関野貞, 『関野貞日記』(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p.671).

함께 시라이시의 집을 방문해¹⁴ 사리탑을 조사하였다(도 6).¹⁵

같은 해 5월, 사리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한 와카모토제약회사 사장 나가오 긴야(長尾欽彌)는 6萬圓에 이를 매입하여 그의 정원에 秘藏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오전, 오랜 지인이었던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68~1956)가 그의 집을 전격 방문하였고, 고심 끝에 나오는 그 날 저녁 세키노에게 불국사 사리탑 기증 의사를 밝혔다.¹⁶

¹⁴ 세키노 다다시와 시라이시 타시로의 관계를 입증해 줄만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키노 다다시가 1867년생, 시라이시 타시로가 1887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불국사 사리탑 매수 시도를 계기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참고로 세키노는 造家學科(건축학과의 전신), 시라이시는 토목공학과 출신이고, 1933년 시라이시가 세키노를 방문했을 당시, 세키노는 도쿄제국대학 교수, 시라이시는 도쿄제국대학 강사였다.

¹⁵ 関野貞日記(1933.2.21), 関野貞, 앞의 책, 2009, p.671.

¹⁶ 제약 사업가 나가오 긴야는 그의 부인과 함께 고미술품을 수집했던 컬렉터로도 유명하다. 『國華』索引에는 미술작품과 함께 소장가가 병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 이로 미루어 그가 조선, 중국, 동남아, 서역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회화, 도자, 불교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한때 나가오미술관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공장 폭발사고로 파산한 후 소장품을 대거 처분하면서 나가오컬렉션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세키노 다다시와는 불국사 사리탑의 총독부 헌납을 계기로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다. 『関野貞日記』에 1933년 5월 이후, 세키노가 나가오의 가마쿠라 별장을 방문하거나 중국 다롄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昭和 8년 6월 15일, 맑음.

아침, 長尾[欽彌, 와카모토제약 사장]의 저택에서 宇垣 총독에게 불국사 사리탑에 대해 설명했다.
저녁, (長尾로부터) 사리탑을 총독부에 기증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¹⁷

총독이 다녀간 다음 날인 6월 16일, 나가오는 “(이 사리탑을) 개인이 專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閣下의 上京을 계기로 삼가 總督府에 獻納”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총독에게 보낸다.¹⁸

謹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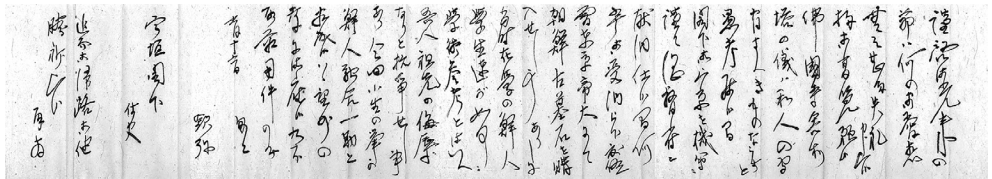
왕림하셨을 때 아무 대접도 못해드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高覽을 부탁드린 佛國寺 舍利塔 건은 개인이 專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閣下의 上京을 계기로 삼가 總督府에 獻納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東京帝大에서 朝鮮의 古墓石을 구입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재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들이 “아무리 學術에 參考한다고는 해도 우리 조상을 모욕한 것”이라고 抗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小生の 행동이 조선인 융합에 일조하게 되니 뜻밖입니다. 일단 용건만 총총.

6월 16일, 野彌

宇垣閣下

추신. 歸路에 健勝을 바랍니다. 再拜(도 7).¹⁹



도 7 나가오 긴야(와카모토제약 사장)가 우가키 가즈시게(조선 총독)에게 보낸 편지, 1933. 6. 16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43-001).

¹⁷ 関野貞日記 (1933. 6. 15), 関野貞, 앞의 책, 2009, p. 674.

¹⁸ 나가오 긴야의 불국사 사리탑 기증 미담을 다룬 신문기사에서 “오랜 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나가오와 우가키 총독의 교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재계 인사의 형식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친분을 암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가키 총독은 하필 왜 그 시점에 나가오의 집을 방문했던 것일까? 나가오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高覽을 부탁드린 불국사 사리탑 건은...”이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나가오가 먼저 총독 방문을 추진했던 것 같다. 때마침 나가오의 와카모토제약은 조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¹⁹ 長尾欽彌가 宇垣一成에게 보낸 편지 (1933. 6. 16),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43-001.



도 8 나가오 긴야 저택 내 數寄屋에 안치되어 있는 불국사 사리탑, 1933. 6. 20 (『古刹佛國寺へ再び歸る金舍利塔』, 『大阪朝日新聞』).



도 9 귀환을 앞두고 열린 송별공양식을 위해 도쿄 조조지 대웅전 내부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탑, 1933. 7. 24 (『慶州佛國寺石塔, 卅年만에故國으로』, 『동아일보』).

이렇게 해서 불국사 사리탑의 조선 반환이 결정되었는데,²⁰ 당시 매체들은 30여년만의 사리탑 귀환 사건을 “內鮮融和の一助”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도 8).²¹ 반환을 앞둔 7월 21일, 도쿄 조조지(増上寺)에서는 사리탑 공양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에는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당시 수상으로 재임 중이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를 비롯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昭和 8년 7월 21일, 맑음.

오후 1시 반 増上寺에서 불국사 사리탑 공양식이 열렸다.

(齋藤實)首相, 清浦(奎吾)伯, 永井拓相 등 수십인이 臨席했다.²²

21일 동경에서 長尾氏 주최로 送別供養法會開催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경주 불국사에 있던 석조 사리탑은 어떠한 자의 절취로 말미암아 그 종적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동경에 있는 長尾欽彌氏의 소장한 古物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氏

²⁰ 사리탑의 도쿄-부산 간 해상 운반은 朝鮮郵船株式會社에서 담당하였다. 慶州佛國寺行舍利石塔運搬ノ件 (1933. 6. 26),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38-001~4.

²¹ 「至寶'舍利石塔'元の佛國寺へ」, 『東京朝日新聞』, 1933. 6. 17; 「古刹佛國寺へ再び歸る金舍利塔」, 『大阪朝日新聞』, 1933. 6. 20; 「藝術の粹舍利石塔'佛國寺'に歸る」, 『東京日日新聞』, 1933. 7. 22 등.

²² 関野貞日記 (1933. 7. 21), 関野貞, 앞의 책, 2009, p. 675.

는 그 사리탑이 우리 경주 불국사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자 곧 경주로 奉還할 결심을 하고 그동안 관계 각 방면을 통하여 그 수속을 마친 후, 지난 21일 오후 1시에 동경지구 增上寺 대법당 안에 전기 사리탑을 봉안하고 송별공양회를 열었다는 바 그 회에는 저명인사가 많이 참집 하였시고, 그 탑은 즉시 경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데, 이 탑은 불국사 대웅전 뒤 비로전 앞뜰 중앙에 서 있든 것으로 높이 6척의 화강석조요, 조각의 정교한 것은 실로 돌도 없는 보배라고 한다(도 9).²³

1933년 8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경주에 도착한 사리탑은, 9월 20일, 전날 내렸던 폭우로 인해 사방의 교통이 두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학무국장장과 박물관장, 경북도지사 등 관료 및 지역유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慶讚法會를 마치고,²⁴ 마침내 원래의 자리에 안치되었다(도 10, 11).²⁵



(左)도 10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불국사 사리탑, 1933. 8-9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78-001).

(右)도 11-1 목책 설치 후 전경, 1933. 9. 30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91-003).

²³ 「慶州 佛國寺 石塔, 卅年만에 故國으로」, 『동아일보』, 1933.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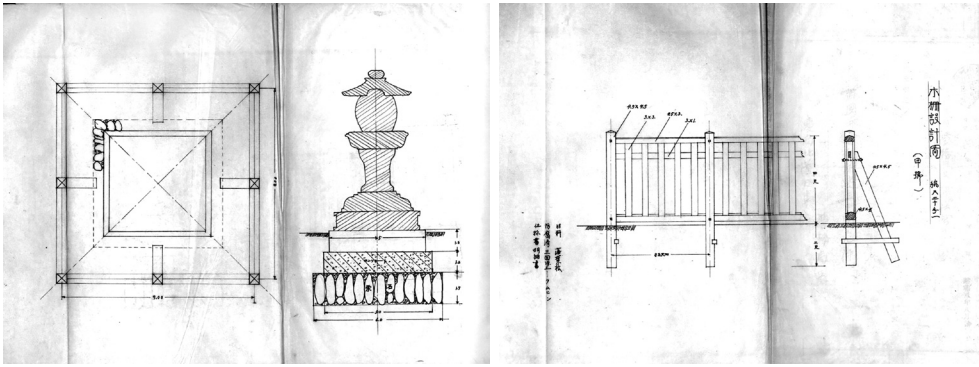
²⁴ 慶讚法會는 사찰의 건물을 낙성하거나 중수했을 때, 혹은 불상 및 탑을 조성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다. 불국사 사리탑과 관련해서는 총 3차례의 경찬법회가 열렸다.

· 1933. 7. 21: 사리탑의 조선 반환을 앞두고 도교 增上寺에서 사리탑 송별공양식 거행

· 1933. 9. 20: 경주 불국사 귀환 기념 경찬법회 거행

· 1935. 5. 10: 석존제날 사리탑 보호각 낙성식을 겸한 경찬법회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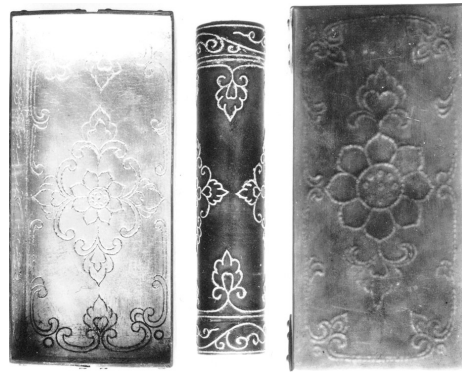
²⁵ 「慶州 佛國寺의 舍利歸郷供養」, 『동아일보』, 1933. 9. 20; 「慶州 舍利塔 慶讚法會 盛大」, 『매일신보』, 1933. 9. 21.



도 11-2 목책 설계도, 1933.9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61-001(左)·A059-024-062-001(右)).

경주 불국사의 사리탑이 30년만에 다시 고토를 찾아오게 되어 지난 20일에 동사에서 성대한 경찬법회를 거행한다 함은 이미 보도함과 같거니와 당일은 폭우가 나리어 사방의 교통이 두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반 학무국장을 위시하여 80여명의 래빈이 참석하고, 대웅전 내에서 엄중한 경찬식을 마쳤다. 불국사 사리탑은 신라시대의 작품으로, 그 형상은 석등과 흡사하여 극히 우미수려하고, 석조물로서는 가장 걸출이다. 높이가 약 7척, 8각의 대석상에 팔엽복연화의 석대를 걸어놓고, 운문조각의 중대로서 구엽양연문의 중대를 바치어 그 우에는 대고형의 탑신석을 얹어서 사방불합에는 반육조각으로 하여 십각의 개석을 덮어 정상에 원석을 두었다. 그 구조의 공교함이 극히 우미경쾌하여 신라미술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²⁶

한편 나가오 긴야는 사리탑 기증과 더불어 사리탑 碑圖를 위해 金千円을 기부하기로²⁷ 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 본래 사리탑 내에 납입되어 있었던 經卷을 보내온다.²⁸ 이 經卷, 즉 經箱은 1935년 釋尊祭(4월 20일) 기념 행



도 12 불국사 사리탑 내 납입 經箱, 1933. 10.20(촬영일자)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건판018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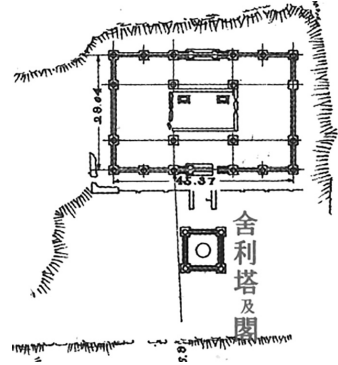
²⁶ 「舍利塔 마저 慶讚會 舉行」, 『동아일보』, 1933. 9. 23.

²⁷ 関野貞日記(1933. 9. 8), 関野貞, 앞의 책, 2009, p. 679.

²⁸ 經卷到着に付通知ノ件(1933. 10. 23),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59-024-088-001-2.



도 13 불국사 사리탑 및 보호각 전경, 1935. 5. 16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A079-013-003-002).



도 14 불국사 가람배치 평면도 중 사리탑 및 사리탑각, 1938 (『佛國寺と石窟庵』, 朝鮮總督府, 1938).

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국사 사리석탑각 낙성식」(5월 6일) 때 사리탑 내부에 납입했다고 하나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도 12).²⁹ 여하튼 1935년 5월 사리석탑각 낙성(도 13) 및 같은 해 7월 13일 준공을 끝으로³⁰ 불국사 사리탑의 流轉은 일단락되었다(도 14). 공교롭게도 보름 뒤인 7월 29일, 세키노 다다시는 69세 나이로 눈을 감았다.

2. 약탈적 반출 혹은 현지주의적 보호

그간 연구자들은 1933년의 불국사 사리탑 반환 사건을 일제의 문화재 약탈이라는 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하나의 기적”으로 설명해왔다.³¹ 이러한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916년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과 1933년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등 총독부의 현지주의적 보호 정책을 설명할 수 없고, 불국사 사리탑 반출과 귀환의 맥락을 재구성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약탈’과 현지주의적 ‘보호’ 모두를 포괄하는 植民主義라는 차원을 다시 설

²⁹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9-023-003-001에는 經箱의 사진과 간단한 이력이 병기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상의 소유주는 長尾欽彌, 사진 촬영 날짜는 소화 8년(1933년) 10월 20일이고, “소화 10년(1935년) 5월 6일, 舍利塔身에 납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 佛國寺·石窟庵釋尊祭舉行件(1935. 4. 20),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9-019-001-001; 佛國寺舍利石塔閣落成式に長尾欽彌氏出席問合ノ件(1935. 5. 3),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9-016-001-2 등 참조.

³⁰ 佛國寺舍利石塔閣竣成ノ件(1935. 7. 13),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79-020-001-2.

³¹ 불국사 사리탑을 비롯한 ‘한국문화재 수난사’를 다룬 선구적 연구로는 이구열과 정규홍의 글이 있다.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돌베개, 1996), pp. 99-101; 정규홍, 『석조 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학연문화사, 2007), pp. 27-32.



도 15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불국사 사리탑. 화면 우측 하단으로 떨어져있는 옥개석이 보인다. 1904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건판022440).

정할 필요가 있다.

황수영은 불국사 사리탑이 “韓末에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석등으로 칭찬된 바가 있었고, 그같은 평가가 도리어 화가 되어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³² 하였다. 말 그대로 ‘신라 예술의 극치’라는 세키노 다다시의 평가는 문화재 도굴과 약탈이 판치던 舊韓國시대에 사리탑에 대한 일본인의 구미를 한껏 당기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蓋石이 땅에 떨어져 방치된 채 서 있었던 사리탑은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도 15)³³ 함부로 취해도 되는 남의 나라의 보물로 여겨졌을 것이고, 여기에서 寺僧으로부터의 購得을 통한 사리탑의 약탈적 반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33년의 상황은 달랐다. 이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영원한 영토가 되었고, 「보존령」도 공포되었다. 더구나 “조선을 갱생시켜 本國의 危難을

구제하고자” 했던 우가키 총독에게 한국시대에 일본으로 반출된 사리탑을 조선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일은 內鮮融和의 좋은 상징이 될 것이었다. 문화재 現地主義는 “그 취지를 봐도 그 성과를 봐도 영원히 기억되는” ‘일본인의 자부와 자찬의 대상’³⁴ 될 만한 것이라기보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법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06년 사리탑이 “곧 東京으로 올 것이다!”라는 기대에 찬 세키노의 모습과 조선 병합 후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애석한 심정으로 사리탑의 행방을 찾아” 왔던 세키노의 심정은 결국 식민주의의 양면일 뿐이다. 1933년이란 시점에 식민자 세키노 다다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內地에 있던 朝鮮에 있던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바꿔 말하면, 내지나 조선이나 다같은 일본 땅이기에 사리탑이 도쿄에 있어도 조선에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

³²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 115.

³³ 関野貞, 앞의 책(1906), p. 295.

³⁴ 中村榮孝, 『朝鮮史の編集と朝鮮史料の蒐集』, 『古文化の保存と研究』 (吉川弘文館, 1953), p. 654(이성시,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10), p. 210에서 재인용).

다.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의 정수'였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불국사 사리탑이 또다시 '신라문화의 정수'라는 이유로 현지주의와 내선융화의 기치 하에 조선으로 되돌아온 것은, 기적도 아니고, 일본인의 자부·자찬의 대상도 아닌, 식민주의 자장 안에서의 場所 流轉일 뿐이다.

신라시대의 우수한 작품이라는 세키노 다다시의 평가는 불국사 사리탑을 조선과 일본에서 流轉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 사리탑이 신라시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세키노 다다시 死後 사리탑의 시기 비정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시기 비정의 변화가 불국사 사리탑의 재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Ⅲ. '신라'에서 '고려'로 - 사리탑 시기 비정의 변화

세키노 다다시는 1904년, 1906년, 1909년,³⁵ 그리고 1933년에 불국사 사리탑에 대한 글을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良匠의 고심이 있는 바로서, 당시 신라예술의 발달이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이 사리탑은 지대석 위의 복련이 다소 粗大에 기울어진 외에는 權衡도 아름답고, 각 부에 새긴 彫飾도 우아하고 세련된 技工으로 되어 있어 신라시대 중기의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그 地臺를 팔각형으로 하고, 그 위의 복련을 아홉판으로 하고, 중대간석을 둥글게 하여 頭大脚小의 주형을 이루고, 중대의 양면을 열판으로 하며, 탑신을 鼓胴形으로 하고, 옥개를 일종의 십이각형으로 하며, 노반을 육각형으로 하는 등 층층 의장을 달리하여 변화의 妙를 다하고 있는 것은 良匠의 고심이 있는 바로서, 당시 신라예술의 발달이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³⁶

'신라시대 것'이라는 세키노 다다시의 시기 비정은 일제시기 내내 흔들리지 않는 정설의

³⁵ 関野貞, 앞의 책(1904), p. 42; 関野貞, 앞의 논문(1906), pp. 292-296; 関野貞, 「韓國慶州に於ける新羅時代の遺蹟」, 『東洋協會調査部學術報告』1 (東洋協會, 1909), pp. 77-128.

³⁶ 関野貞, 앞의 논문(1933), pp. 19-21. 이 글은 세키노 다다시 死後 関野博士記念事業會에서 그의 유고를 모아 발간한 『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 1941)에 재수록 되었다.

위치에 있었다. 1916년 발행된 『조선고적도보』를 비롯하여 1933년 사리탑 귀환을 다룬 신문기사들은 일제히 세키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1938년 발행된 『불국사와 석굴암』만이 세키노의 시기 비정을 따르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라 중기에서 하대로 그 하한을 내려잡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탑은 조선에 있어서도 유일한 예로서, 彫飾의 豊麗優雅함과 함께 方形·六角·八瓣·九葉·十二角 등 층층이 그 형태를 다르게 하여 상·하 풍취에 변화를 주면서도 통일을 이루고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에서 신라 하대의 비범한 기법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⁷

그러나 1935년 5월 보호각 낙성식으로 사리탑 반환 문제가 일단락되고, 같은 해 7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세키노 다다시가 죽자, “불국사 사리탑은 신라문화의 정수다”라는 설은 고유섭(1905~1944)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고유섭은 1936년 「고려의 부도미술」에서 “(이 사리탑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고려시대 것”이라 간단히 언급한데 이어,³⁸ 1943년 「불국사의 사리탑」에서 양식 비교와 문헌 고찰을 통해 이것이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키노 다다시는) 이 사리탑을 가리켜 “신라 중기의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 중기란 것의 연대적 또는 세대적 한계가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중기의 특색으로서 열거한 아름다운 권형, 우아한 조식, 세련된 기공 등의 표현은 모두가 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구체적 요건이 될 수 없다. 세상 일반이 이 사리탑을 신라작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할까?³⁹

라며 세키노의 시기 비정과 세상 일반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불국사 사리탑은 보기에는 특수한 형태를 나타내고 작품으로는 또한 우수한 것임에 틀림없다. …… 다만, 優作이라고는 하나 신라의 여러 작에 있어서와 같이 규격의 淸朗함을 결하고, 刀痕

³⁷ 『佛國寺と石窟庵』(朝鮮總督府, 1938) 『佛國寺와石窟庵』(민족문화, 2004), pp. 85-87에 재수록.

³⁸ 고유섭, 「高麗의浮屠美術」, 『朝鮮美術文化史論叢』(서울신문사출판국, 1949), pp. 89-94.

³⁹ 고유섭, 앞의 논문(1943) (앞의 책(2007), p. 120에 재수록).

의 遒勁함을 결하고 있다. …… 氣力이 최후까지 철저하지 못했던 고려조의 기풍을 보인다.⁴⁰

라며 세키노의 견해에 반박하였다.

해방 이후, 사리탑의 시기 비정은 대부분 고유섭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1961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보도록』을 필두로 하여, 1968년 『문화재대관』, 1976년 『불국사 복원 공사 보고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층층이 변화를 주었고, 彫法이 優雅하며 刀痕이 美麗하고 전체가 통일되었다. 간석의 운문이나 복연의 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엽의 소작이 아닐까 한다.⁴¹

이 舍利塔은 新羅時代 作品으로 여겨왔으나 下臺의 眼象手法, 中臺石의 雲紋手法, 또는 塔身의 龕室 周緣線이 麗代 眼象의 輪郭線과 恰似한 点 等 高麗時代 特徵이 如實히 나타나 있음을 보겠다. 全面의 彫飾은 華麗하고 彫法 또한 纖麗할 뿐 아니라 全體의 調和를 얻은 美麗한 作品이다. 塔身에 彫刻된 四軀의 佛·菩薩의 手法은 羅代의 그것을 繼承하고 있으니 그 製作이 高麗 初期에서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⁴²

佛像의 造像樣式은 新羅의 餘韻을 남겼고, 地臺石의 眼象, 中臺石의 雲紋의 樣式은 高麗時代의 特徵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³

“고려 초엽의 소작이 아닐까 한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에서부터 “고려시대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는 확신으로, 혹은 “신라의 여운을 남기고 있지만, 고려시대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식의 논조의 강약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요컨대, 그 판단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사리탑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고려시대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신라시대 사리탑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명난 사리탑이 불국사 복원 공사와 맞물려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0 고유섭, 앞의 논문(1943) 앞의 책(2007), pp.133-134에 재수록.

41 『국보도록』 5 (문교부, 1961), pp.6-7.

42 『文化財大觀』(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8), p. 340.

43 『불국사 복원 공사 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44-45.

IV. 1960~70년대 불국사 복원과 사리탑의 재이전

1969년부터 불국사는 대대적인 복원 공사에 들어간다. 그 목적은 찬란한 신라시대 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불국사 복원을 통해 “신라문화의 精華를 재현한다”는 것이었다.

불국사 복원 계획서

1. 目的

燦爛한 新羅時代 文化의 象徴的 存在이며 世界의 名勝古蹟인 佛國寺를 復元 淨化함으로써 文化民族으로서의 主體意識과 긍지를 振作시키고 文化財 地域 多目的 開發의 模範地區로 發展시켜 우리나라 古代文化를 宣揚함과 아울러 觀光振興事業에 壽與토록 한다.

2. 方針

1) 莊嚴한 新羅時代의 荒刹을 復元함으로써 燦爛한 新羅文化의 精華를 再現한다...⁴⁴

신라 불교문화의 정점을 가장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유존시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불국사 지역을 그 옛날 전성기의 규모로 재현시키자는 대대적인 복원 계획이 착수되고 있다. 연초에 불국사측(주지 이범행)에 의해 독자적으로 연구되다가 문공부의 문화재 관광지 개발 계획의 하나로 발전한 것인데, 만일 이 복원 계획이 제대로 성공하는 날이면, 경주 불국사는 장차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완전하고 전형적인 쌍탑 가람의 유일한 위관으로 관광객들을 더욱 매혹시킬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러나 이것이 구현되기에는 난관이 많았다.

그 난관이란, 첫째, 신라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의 現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고려시대 사리탑이 이에 해당했다. 둘째, 도량으로서의 불국사의 현실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배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사리탑 이전을 포함했던 불국사 측의 계획서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셋째, 가람배치를 신라시대의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殿閣의 신라시대 양식을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복원의 큰 난관이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사리탑의 위치 재선정과 관련한 사항만을 언급

⁴⁴ 불국사 복원 실행 계획 보고 (1969. 6. 26), 국가기록원 BA0120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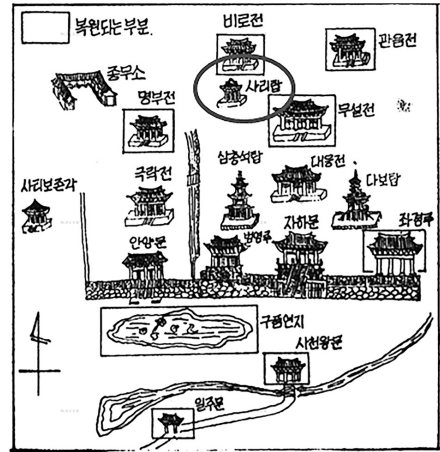
⁴⁵ 『제 모습 찾을 신라 가람』, 『경향신문』, 1969. 6. 18.

하겠다. 복원 공사에 즈음하여 불국사 측에서는 먼저 계획서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리탑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불국사복원사업은 진홍섭, 황수영, 조명기 교수 등 관계학자의 고증에 의해 불국사측에서 마련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 불국사 주위의 울타리를 없애고 사리탑을 제자리에 그대로 두며, ...⁴⁶

1969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불국사 측에서는 사리탑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학자들의 반대로 사리탑의 현상을 유지하기로, 즉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하였던 것이다(도 16, 17).

한편 불국사 복원 공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신라시대 초석들이 남아있는 전각과 회랑을 “현존하는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게 李朝건물로 통일시킬 것이냐, 아니면 불균형을 무



도 16 불국사 다목적 개발 계획 조감도 (1400년 전의 옛모습 되찾는 佛國寺 복원), 『경향신문』, 1969. 5. 10).



도 17 (左)비로전지 앞의 사리탑과 보호각, 1969. 8. 24 (공보처 홍보국 촬영, 국가기록원 CET0047560).

(右)불국사 전경, ○부분이 사리탑 보호각, 1969 (공보처 홍보국 촬영, 국가기록원 CET0047565).

⁴⁶ 「1400년 전의 옛 모습 되찾는 불국사 복원」, 『경향신문』, 1969.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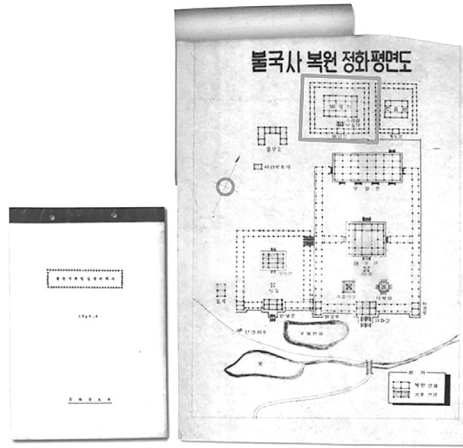
릅쓰고라도 창건 당시의 신라 양식을 더듬어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⁴⁷ 고심 끝에 조선시대 양식으로 재현하기로 하고, 비로전만은 다른 전각들보다 앞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고려 말 양식으로 재현할 것을 결정한다.⁴⁸

이로써 1969년 8월, 비로전 전면 중앙에 사리탑이 위치한 불국사 복원 평면도가 완성된다(도 18). 고려시대 양식으로 복원될 비로전 앞에 고려시대 양식으로 결론 난 사리탑이 위치한다는 것은 꽤 괜찮은 조합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 12월 30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로전 목공사를 위한 가설비계 설치를 위해 주변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에서 사리탑 보호각 일부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복원 공사 일지」에는,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로전의 木部조립을 위한 假設浮械가 올라감으로 해서 주위에 단풍나무와 벚나무 등 몇 그루를 베어야겠기에 시청의 협조를 얻어 베어버렸다. 이 나무 바로 밑에 舍利塔 保護閣이 있는데, 나무를 조심해서 베다가 귀마루를 건드려 귀 부분이 파손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일본인이 일본의 건축양식으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헐어내고 보물인 사리탑도 고려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치를 다시 잡아 세우던가 유물 전시관을 세워 다른 불국사의 중요 유물들과 같이 전시되어야 하므로 개의할 것은 못되나 수목 제거의 부주의로 건물 일부에 손상을 입혔다.⁴⁹

말하자면, 이 사리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치를 다시 잡아세우면” 되기 때문에 “개의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수습책으로 문화재위원회는 1971년 2월 22일,



도 18 불국사 복원 정화 평면도, 1969.8 (『불국사 복원 실행 계획서』, 문화공보부, 1969).

⁴⁷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한양대학교 박물관, 2012), p. 115.

⁴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976, pp. 183-184.

⁴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1976, p. 224.



도 19 불국사 사리탑 보호각 해체 모습, 1971.3.8 (『불국사 복원 공사 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166).

보호각을 해체하고 사리탑을 임시보물보호각에 보관키로 심의 의결하였으나⁵⁰ 3월 8일, 불국사 측에서는 실측도 끝나기 전에 보호각을 일방적으로 해체해 버렸다(도 19).

1971년 3월 8일(晴)

지난 6일부터 사리탑 보호각을 실측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데,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해체에 들어갔다.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명은 있었으나 실측이 완전히 끝난 후에 하여야 되는데, 아침에 출동하여 보니 새벽부터 해체를 시작했다 한다. 그래서 해체된 부재들을 가지고 마저 실측을 마치고, 사진도 제대로 못찍고 말았지만 이 건물이 대단치는 않은 것이어서 천만다행한 일이고, 유물(사리탑, 보물 61호)을 충분히 포장하여 조심성 있게 운반하도록 일렀다.⁵¹

이에 대해 조사단에서는 “유물(사리탑, 보물 제61호)을 충분히 포장하여 조심성 있게 운반하도록” 일렀을 뿐이다.

한편 복원 공사 완료 후 2년이 지난 1975년 1월, 불국사에서 사리탑이 안치되어 있는 유물보호각을 종무소로 사용하겠다고 사리탑을 비로전 내부로 이전할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사리탑이 전각 안에 들어간 예는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⁵⁰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록(1971. 2. 22), 국가기록원 BA0120144.

⁵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1976, p. 225.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1차 회의록

일 시: 75. 2. 14(금), 14:00

장 소: 문화재관리국 회의실

다. 佛國寺 舍利塔 移轉

불국사 사리탑을 비로전 내부 중앙으로 이전코자 하는 불국사 주지의 신청사항은 부도를 법당 건물 내에 보존하는 예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유물각 내에 계속 보존토록 심의 결정함.⁵²

이에 불국사에서는 다시 사리탑 이전을 위한 장소 선정을 의뢰하였다.

불국사 사리탑 보호각 신축장소 선정 의뢰

1. 문재일 1080-1365(75. 2. 18)에 관련됩니다.
2. 사리탑(보물 제61호)을 이전키 위해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서 일건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귀국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회의(75. 2. 14)에서 이전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3. 현재 임시로 보관 중인 유물각은 불국사종무소로 사용할 예정이온 바 불가피 이의 대안으로 경내 적당한 공지에 보호할 건물 2평 정도를 신축하여 이전코저 하오니 이에 대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⁵³

거듭되는 불국사의 요청에 문화재위원회는 비로전 옆 空地에 별도의 전각을 만들어서 사리탑을 넣으라 지시하였다. 이로써 사고 수습은 일단락되는데, 이곳이 현재 사리탑이 있는 장소이다(도 20).

사건에 비해 심상한 수습과정에서 문제삼고 싶은 것은 “보물인 사리탑도 고려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치를 다시 잡이” 세우면 되니 “개의할 것은 못된다”는 판단의 무심함이다. 보호각 파손이 실수인지, 실수를 가장한 고의인지는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기회로 하여 ‘위치를 다시 잡아 세운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불국사 사리탑은 고려시대 이래로 일제시기 30여년을 제외하고는, 천년 가까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 오랜동안 불국사 경내에서 새로 건립되고 쓰러져간 전각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왔을

⁵² 불국사 사리탑 이전 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 (1975. 2. 18), 국가기록원 BA0122285.

⁵³ 불국사 사리탑 보호각 신축장소 선정 의뢰 (1975. 2. 22), 국가기록원 BA0122285.



도 20 불국사 전경(2000년대), □부분이 사리탑·사리탑 보호각

것이다. 유서와 여러 관계성을 품고 있는 ‘그 장소’라는 現狀을 ‘고려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저변에는 불국사의 原形은 통일신라기에 있고 그 이후는 돌아볼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의 역사는 통일신라기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정체와 퇴화의 역사라는 식민주의 역사관이 무의식적으로 투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정체하는 조선에 대한 병합이 정당화된 것과 같이 퇴화기에 만들어진 사리탑의 이전 역시 ‘개의할 것이 못되는’ 일이었다. 해방 후 불국사 복원 사업 속에서의 사리탑 재이전 과정에도 식민주의 역사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시작된 불국사 사리탑의 流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른다. 처음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국사 사리탑을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놓아야 할까? 여기에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리탑이 비껴서 있는 그 자리 역시 이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비로전이라는 실체적 공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기 때문이다.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기존 질서를 청산하는 것은 고려시대 것이라는 이유로 밀려난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될 것이다.

사리탑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비로전이 허물어진 공터에 전각과 상관없이 사리탑이 조성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전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필요성으로 사리탑이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국사 건립 이후 여러 전각과 불상과 석탑이 만들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건립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관계는 부조화가 되어 갔고, 다시 이 부조화는 어느 순간 원래의 관계, 원래의 자리가 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느 한 시대 -그것이 설사 최초 건립이라고 해도- 를 정지화면으로 삼아 복원한다는 것은 각각의 관계와 자리를 재구축해 온 시간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역사적 세계에서 '원래의 기원'은 기준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리탑의 '위치를 다시 잡아 세운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별도의 전각'에의 유포는 이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key words)**_불국사 사리탑(佛國寺 舍利塔, the Stone Relic Stupa in the Bulguksa Temple), 나가오 긴야(長尾欽彌, Nagao Ginya),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Sekino Tadashi), 고유섭(高裕燮, Go Yuseop), 식민주의(植民主義, Colonialism), 불국사 복원 공사(佛國寺 復元 工事, Reconstruction of Bulguksa Temple)

■ 투고일 2018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2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14일 ■

참고문헌

1. 사료

- 『경향신문』
『大阪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東京朝日新聞』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회의록』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2. 한국어 문헌

- 『국보도록』5, 문교부, 1961.
『文化財大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8.
『불국사 복원 공사 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 한양대학교 박물관, 2012.
고유섭, 『高麗의 浮屠美術』, 『朝鮮美術文化史論叢』, 서울신문사출판국, 1949.
_____, 『朝鮮美術史』下, 열화당, 2007.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이성시,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10.
정규홍, 『석조 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07.
허형욱, 『佛國寺 石造 舍利塔의 造成時期와 性格 考察』, 『동원학술논문집』13, 국립중앙박물관, 2012.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3. 동양어 문헌

- 『佛國寺と石窟庵』, 朝鮮總督府, 1938.
『朝鮮古蹟圖譜』4, 朝鮮總督府, 1916.
고유섭, 『佛國寺의 舍利塔』, 『清閑』15, 清閑社, 1943. 3.
関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学, 1904.

- _____, 「韓國新羅時代ノ石燈」, 『國華』192, 國華社, 1906. 5.
- _____, 「韓國慶州に於ける新羅時代の遺蹟」, 『東洋協會調査部學術報告』1, 東洋協會, 1909.
- _____, 「佛國寺舍利石塔」, 『美術研究』19, 1933. 7.
- _____, 「佛國寺舍利石塔」,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 _____, 『閔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불국사 사리탑이 처음 학계에 보고된 1904년부터 해방 이후 현재의 위치에 봉안되기까지의 流轉 과정을 '식민주의'라는 문제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경주 불국사 비로전 옆에는 사리탑이 한 구 있다. 이 사리탑은 韓末 일본으로 반출되어 행방불명되었다가 1933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간 이에 대해서는 일제의 문화재 약탈이라는 차원에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개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閔野貞日記』를 통해 사리탑의 반출 경위, 일본에서의 전전, 조선으로의 귀환 과정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사리탑을 반출한 오사다 신조, 이를 비장하고 있었던 시라이시 타시로, 사리탑을 매수하여 조선총독부에 헌납한 사업가 나가오 긴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당시의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그리고 일본인 관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그 중심에 있었다.

조선 병합 전, 세키노 다다시는 불국사 사리탑을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석등”이라 칭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도리어 화가 되어 사리탑 반출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內鮮融和의 기치 하에 사리탑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명분 또한 “신라문화의 精髓”라는 그의 평가 때문이었다. 세키노 다다시의 평가가 불국사 사리탑을 조선과 일본에서 流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세키노 다다시 死後 고유섭은 불국사 사리탑이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하였고, 해방 이후 그의 주장은 정설로 굳어져 갔다. 이렇게 신라의 것에서 고려의 것이 된 불국사 사리탑은 1970년대 불국사 복원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당시의 복원 목표는 신라시대의 상징적 존재인 불국사를 복원하여 ‘찬란한 신라문화의 精華를 재현’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난관이 많았다. 특히 사리탑과 관련해서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정설과 그것이 위치하게 될 신라문화를 재현할 불국사 사역 사이의 모순을 피하기 어려웠다. 결국 사리탑 보호각 파손 사고와 이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장소 재선정 논의 속에서 불국사 사리탑은 원래 있었던 비로전 앞이 아닌 비로전 옆으로 치워져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근현대 불국사 사리탑의 流轉, 즉 일본으로의 반출과 조선으로의 귀환, 그리고 해방 후 불국사 내에서의 이동 모두는, “조선의 불교미술은 통일신라시대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로는 쇠퇴하였다”는 식민주의 인식의 자장 안에 있었던 것이다.

Traveling of the Stone Relic Stupa in the Bulguksa Temple and Colonialism

Shin, Eun young*

This article explores, from a colonialism perspective, where the stone relic stupa in the Bulguksa Temple has been taken since its first reporting in 1904 and how it finally settled down in its current location.

Next to the Birojeon Hall (Vairocana Hall) in the Bulguksa Temple, Gyeongju has one relic stupa. This stupa was transported to Japan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nd its whereabouts after that became unknown. It was then returned to Joseon in 1933. This has been understood as Japan looting the stupa.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course of taking the stupa from the temple, it wandering across Japan, and it being returned to Joseon based on official documents from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and the *Diary of Sekino Tadashi*, which have been made open to the public. The key players were Osada Shinzō (長田信藏), who carried the stupa; Shiraiishi Tashiro (白石多士良), who hid it; Nagao Kin'ya (長尾欽彌), who bought the stupa then donated to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Ugaki Kazushige (宇垣一成), the governor-general who politically utilized it; and finally, Sekino Tadashi (関野貞), a Japanese government scholar.

Before Japanese occupation, Sekino highly appraised the stupa at Bulguksa Temple: "It is the most excellent stone lantern." This comment was the main reason for looting the stupa, and

* Curator, Song-am Art Museum

ironically, his comment, “the essence of the Silla culture,” also caused the stupa to be returned to Joseon after wandering Korea and Japan under the slogan of reconciling Japan and Joseon.

After Sekino’s death, Go Yuseop (高裕燮) argued that the stupa was made, not under the Unified Silla period, but under the Goryeo period. His argument was widely accepted until the reconstruction of the Bulguksa Temple in the 1970s.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reproduce “the essence of magnificent Silla culture” by restoring the temple, which is a symbolic architectural site of the Unified Silla period. However, there were many barriers, particularly for the relic stupa, because it was paradoxical that the stupa, which was accepted as being Goryeo’s, was located in the same site as the Bulguksa Temple, which represents the Silla. After the protective structure of the stupa was damaged—which provided a valid excuse to debate its relocation—it was repositioned and remains at the side of the Birojeon Hall, not in front of it, which was its original location.

The stupa’s travels (i.e., being carried to Japan, being returned home, and being relocated within the Bulguksa Temple site) were based on the colonial perception that Korea’s Buddhist artistic history enjoyed its pinnacl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declined afterward.